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신혜원** · 최명섭*** · 김의준****

An Analysis of Socio-Economic Factors of Households on Additional Children in Seoul*

Hyewon Shin** · Myoungsub Choi*** · Euijune Kim****

요약 :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 명의 자녀 출산을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 이상의 추가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5% 표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모형으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사회·경제학적 요인별 확률 예측을 도출하기 위해 이항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추가자녀 출산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기혼여성의 높은 연령, 자녀의 기회비용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은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기혼여성 및 남성의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가계의 높은 경제수준 등은 추가자녀들을 계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추가자녀의 출산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의 나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가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미래의 기대수입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환경 제공, 금융 및 조세혜택과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것 등의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추가자녀 출산모형, 추가자녀 출산계획, 추가출산 결정요인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identify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of households with one child planning more than one additional children in Seoul. Binary Logit model is developed with 2005's micro census 5% sample data. Variables of mother's old age, female economically active and high opportunity cost on fostering a child lead to low possibilities of planning additional children. On the other hand, the variables of male economically active, high education level of married men and women and high level of household economy cause it to be quite probable that households with a child plan additional children. Among variables, female age has the substantial effect on planning additional children. For encouraging additional childbirth, it is necessary to offer secure job opportunities, to provide financial and tax incentives and to support work-family balance for households with a child.

Key Words : additional childbirth model, additional childbirth plans, additional childbirth determinants

*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08U-Eco A03-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석사과정(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박사과정(Ph.D Candidat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E-mail: euijune@snu.ac.kr, Tel: 02-880-4742)

I. 서론

정부는 1960년대에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여 당시 6명에 이르는 합계출산율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는 인구성장과 청소년 부양비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전광희, 2002). 이와 더불어 예전의 농축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공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다자녀 출산에 대한 유인은 줄어들었다. 이는 과거의 농축업 위주의 산업사회에서는 육아와 일의 병행이 가능하였고, 자녀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자녀출산이 노동력 창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계계승 및 노후부양의 기대 등의 의미에서 다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현대의 산업구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육아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비 증가와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이 강조되어 소자녀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하였다(김승권, 2005).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여성인구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요인과 1997년 이후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 증가 및 실물경제 악화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미래의 남편에게 금전적으로 의탁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줄어들고, 청년들이 높은 주택가격 등 결혼을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하는 경제적 요건들로 인해 결혼을 미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초혼연령 상승이 저출산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전광희, 2002).

이러한 정부주도의 출산억제정책 및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점차 가속화되어 2005년에는 출산율이 1.08명으로 최저수치를 나타냈다. 다만, 2006년과 2007년에는 쌍춘년과 황금돼지띠의 해로 우리나라 전통적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 합계출산율이 1.26명까지 다소 올랐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합계출산율은 다시 내려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향후 우리나라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저출산으로 유발되는 문제로는 우선 노동력 감소를 들 수 있는데, 노동력 감소는 임금상승과 기업의 이윤하락을 유발시킬 것이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곽소희·김호범, 2007).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비 증대로 인해 소비중심의 사회로 변화될 것이며,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 및 저축 감소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방인력 충원을 위해 현역입영의 비율 증대를 초래할 것이며,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장래에 연금을 제공하는 데에 따른 문제와 더불어 노인부양 부담, 노인의료비 부담 등의 증가로 인해 미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김승권, 2005).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¹⁾은 2.1명인데 비해 2007년도의 합계출산율²⁾은 1.26명으로 대체출산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추가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유발시키는

1) 대체출산율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을 말한다.

2)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명이 평생의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현재 평균적으로 1명의 자녀는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둘 이상의 추가자녀를 계획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 한 명의 자녀 출산을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 이상의 추가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지역을 서울시로 한정한 이유는 서울시가 인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선도하는 도시이고, 서울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보다 0.2명이 낮게 나타나며, 부산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 자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5% 표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모형으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확률 예측을 도출하기 위해 이항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2장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모형에 사용된 변인 및 분석 결과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미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의식 하에 현재까지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인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을 선정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문헌은 크게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는데, 거시적 측면에서는 주로 임금 및 경제성장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이 주를 이루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문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거시적 측면의 문헌을 살펴보면, Galor and Weil(1996)은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성장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임금의 상승은 여성의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여성의 임금상승은

<표 1> 거시적 측면 및 미시적 측면에 따른 선행연구

접근방법	저자	연구 특성	방법론
거시적 측면	Galor and Weil(1996)	임금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일반균형모형
	류덕현(2006)	노동시장참여와 임금변수간의 관계를 통해 저출산 현상을 설명	다중회귀분석
	박추환·한진미(2008)	출산, 고용 및 성장간의 상호 영향관계 규명	VAR 모형
	김홍배 외(2008)	코호트별 출산모형을 개발하여 각 코호트별 출산율과 여성 및 남성경제활동비율간의 관계를 분석	과거추세모형 사회경제모형
미시적 측면	전광희(2002)	1985년 이후의 출산력 추이 검토 및 출산율 전망	붕가르츠모형
	이시원 외(2004)	지방자치단체별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	회귀분석, 빈도분석 분산분석
	공선영(2006)	희망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규명	t-검정, 분산분석
	이변송·김상신(2008)	여성의 결혼확률 및 노동시장 참여결정을 분석하여 저출산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OLS 회귀분석

소득효과보다는 자식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를 가져와서 출산율을 하락시킨다고 하였다. 류덕현(2006)은 신가계경제학의 이론적 가설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임금변수들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였다. 자료로는 1975년~2004년 사이의 『인구동태통계연보』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여성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정(+)의 소득효과보다 부(-)의 대체 효과가 커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았다. 박추환·한진미(2008)는 출산, 고용 그리고 성장 간 상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출산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적인 아니면 후행적인 내생변수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70~200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VAR(Vector Auto-Regress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출산이 여성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출산 및 성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요인이 여성고용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홍배 외(2008)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별 출산율모형을 개발하였다. 인구학적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여성들의 코호트별 출산율은 과거추세모형과 사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사용된 변수로는 경제성장률과 남성비경제활동인구비율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이다. 20세~24세와 25세~29세 출산율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남성비경제활동인구비율과 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34세와 35~39세의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은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미시적 측면의 문헌을 살펴보면, 전광희(2002)는 봉가르츠(Bongaarts) 모형을 기반으로 1985년 이후의 출산력의 추이를 검토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21세기 전반부에도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를 전망하였다. 이를 통해 “원치않은” 자녀수가 줄어들어 더 이상 이로 인한 출산촉진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 21세기 기간합계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시원 외(2004)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계청의 인구동태에 관한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전수조사 자료를 지방자치단체별 자료로 재가공하여 사용하였으며, AR1 방식의 회귀분석, 빈도분석 및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30세 이상인 남녀가 첫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출산되는 아이의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되며, 남아선호 사상과 아버지의 전문직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 감소현상을 보였다. 또한, 여성의 직업보유와 자녀의 교육에 따른 경제 부담도 출산을 감소시킨다. 공선영(2006)은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2000년 6월 19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1999년까지 기존자녀가 없는 가임연령(15~49세)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통해 집단간 평균차이를 살펴보고, 희망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희망자녀수가 많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 여성 집단에서 동산 규모가 클수록,

남편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여성의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높으며, 출산율의 감소요인으로 소자녀의 수준 높은 보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연령대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송·김상신(2008)은 『2000년 한국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의 결혼확률 및 노동시장 참여결정 분석과 함께 한국 여성들의 저출산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과 함께 낮은 출산율을 보였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사회가 대체출산율인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합계출산율을 보이면서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둘째 아이 출산계획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나이, 자녀관, 여성 및 남성의 경제활동 여부, 가계경제, 그리고 교육수준 등으로 나타났으며 방법론으로는 t-검정 그리고 F-검정과 같은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론과 로짓모형이 주로 적용되었다.

Hank(2002)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독일의 사회경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독일의 출산이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계층(Multilevel)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아이 출산에는 지역적인 특성의 영향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반면, 둘째아이 출산에 지역적 특성의 영향이 미미하게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적 특성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의 분포가 지역성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천혜정(2005)은 2004년 6월 28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자녀를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가지고 둘째 자녀 희망 여부에 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집단 간 차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추가자녀의 출산을 원하였고, 미래의 자신의 가계 경제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윤소영(2005)은 자녀 1인을 출산한 후 현재 추가적인 임신이나 출산이 없는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여성취업경험 및 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관련 변인의 차이 분석을 위해 χ^2 -검정,

<표 2> 둘째 아이 이상 출산에 관련된 선행연구

저자	연구 특성	방법론
Hank(2002)	독일의 첫째아이 출산과 둘째아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	다계층(Multilevel) 이항로짓
천혜정(2005)	둘째 자녀 희망여부에 관한 배우자간 차이 및 집단간 차이 분석	F-검정
윤소영(2005)	여성취업경험과 둘째아이 출산계획여부간의 관계를 규명	χ^2 -검정, t-검정, F-검정
한은주·박정운(2006)	둘째아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출산의 대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연구하였음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ANOVA) 교차분석
박상미(2007)	기혼의 사회적 관계 및 지역요인이 추가출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다변수로짓모형

t-검정, F-검정을 실시하였고, 외생변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기혼여성의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한은주·박정윤(2006)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출산의 대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ANOVA)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6.1%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를 원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둘째 아이를 원하는 경우는 26.9%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정도를 확인한 결과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둘째 아이 출산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았다. 박상미(2007)는 기혼 여성의 개인적인 사회관계망과 대인관계의 증진 간의 관계, 인구학적 요소의 구성과 거주자의 상태, 보육 지원 및 다른 사회경제학적 상태 등을 포함한 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경제학적 요인의 변화가 추가자녀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변수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여성의 나이, 아이 수, 직업의 종류, 거주종류 및 사회적 그룹의 참여는 출산율과 강한 연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요인으로서는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의 추가아이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저출산에 미치는 주요 요인 중 인구학적 요인으로서는 여성의 나이,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서는 보육관련 변인, 여성의 경제활동여부,

남성의 경제활동여부, 여성의 교육수준, 남성의 교육수준과 가계경제수준 등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분석모형은 미시적 측면에서 주로 사용된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2005년 한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시된 추가출산에 관한 문항이 유/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III. 분석모형 및 결과

1. 분석모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사는 한 명의 자녀출산을 완료한 가구가 한 명이상의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이는 『2005년 한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되는 '추가 계획 자녀수'를 묻는 질문의 답이 '있음'과 '없음'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고, 출산율에 미치는 변인들의 확률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다음의 수식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본모형으로, 적용된 인구 및 사회경제적 독립변인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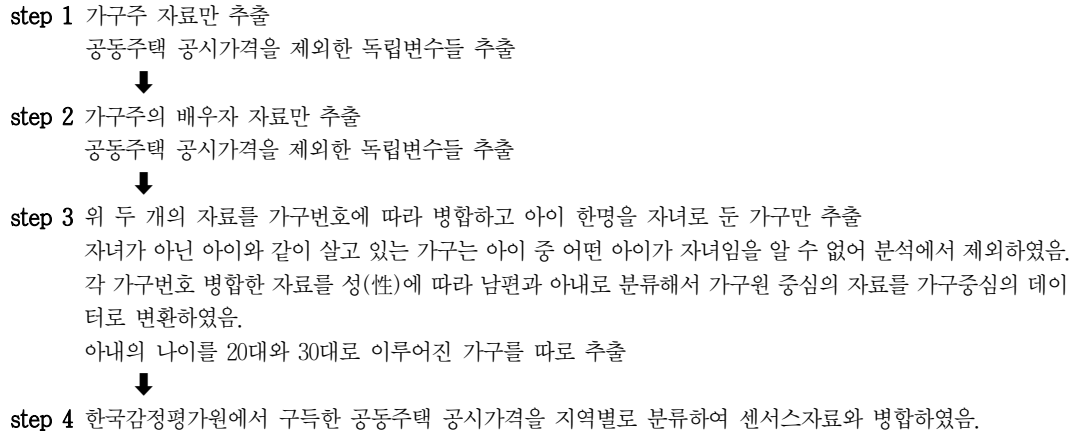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Log}(y_i/y_j) = & \alpha + \beta_1 \text{기혼여성나이} + \beta_2 \text{보육} \\ & + \beta_3 \text{여성경제활동} \\ & + \beta_4 \text{남성경제활동} + \beta_5 \text{여성교육수준} \\ & + \beta_6 \text{남성교육수준} + \beta_7 \text{가계경제} \end{aligned}$$

여기서,

y_i = 추가자녀계획 있음,

y_j = 추가자녀계획 없음

〈표 3〉 자료 변환 과정



그리고 분석자료는 「2005년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5% 표본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본 자료는 신뢰성이 높으며, 개인과 가구관련 변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 3〉은 추가자녀출산계획모형 분석을 위해 「2005년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가구원 중심의 자료에서 가구 중심의 자료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출생한 자녀수에 대한 설문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한 자녀 출산을 완료한 자료를 추출할 경우 기혼여성에 해당하는 가구원 자료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설문도 기혼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여성의 출산계획 여부를 가구를 대표하는 의사로 가정하여 가구중심의 자료로 구성하였다. 분석자료는 총 4단계를 통해 구축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로 센서스 자료가 가구 중심이 아닌 가구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에 사는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주의

자료를 추출하였고, 두 번째 단계로 가구주의 배우자를 따로 추출하여 성별로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가구번호로 병합하여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중 한 자녀 출산을 완료하였으나 가구주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와 살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였으며³⁾, 유배우자 가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출산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연령계층, 특히 20대와 30대에 집중되므로(이시원 외, 2004) 여성의 나이를 20대와 30대로 한정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결혼한 것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감정평가원에서 구득한 공동주택 공시지가 자료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센서스 자료와 병합하였다.

〈표 4〉는 출산모형의 변인을 설명한 것으로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한 추가자녀 출산계획모형의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여성의 나이(21세~39세), 사회경제학적 변인으로는 보육관련 변인, 여성의 경제활동여부, 남성의 경제활동여부, 여성의 교육

3) 자료 중 한 명의 아이만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아이와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제외시켰다.

〈표 4〉 출산계획모형의 변인설명

구 분	변 수	설 명	
		비참조집단	참조집단
종속변인	둘째아이 계획	추가자녀계획 있음	추가자녀계획 없음
독립변인	인구학적변인	기혼여성나이	30대
	사회경제학적변인	보육	돌봐주는 사람 및 시설 있음
		여성경제활동	여성 경제활동
		남성경제활동 ⁴⁾	남성 경제활동
		여성교육수준	여성 교육수준(대학교이상)
		남성교육수준	남성 교육수준(대학교이상)
		가계경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값(53,020천원) 이상

수준, 남성의 교육수준과 해당가구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가계경제의 대리변수로 구축하였다.⁵⁾ 여성의 나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여성의 나이가 21세~29세로 구성된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31세~39세로 구성된 집단은 비참조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육변수는 첫째 자녀의 보육환경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자녀의 부모나 친인척 및 보육시설을 통해 자녀들의 보육환경이 제공되는 환경에 있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보육환경의 제공이 없는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⁶⁾ 여성의 경제활동 변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남성의 경우도 비경제활동 그룹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과 고등학교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고등학교 이하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가계경제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는 감정평가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각 서울

시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평균값인 53,020천원을 기준으로 지역더미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을 참조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표 5〉는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인 중 가계경제 대리변수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더미변수를 제외한 변인들을 분석대상인 서울 지역과 전국을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명의 자녀 출산을 완료한 가구를 중심으로 한 명의 아이 이상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비교하였을 때 전국은 41.84%의 가구가 계획하고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는 약 39.36%의 가구가 출산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환경에 대한 변수를 살펴보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부모나 친인척 및 시설을 통해 아이를 보육하는 가구는 전국(2.93%)에 비해 서울의 경우는 3.45%로 높았다. 기혼여성이 경제활동 하는 경우는 서울이 37.32%로 전국인 33.2%에 비해 다소

4) 소득효과를 반영하는 변수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는 실업률 감소나 고용안정성(일용직여부 등)이 적절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소득효과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5) 감정원에서 구축한 각 지역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지가의 중간점을 중심으로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6) 보육변수의 경우, 보육환경 변수를 '부모, 친인척 등 가족의 비공식적 돌봄'과 '보육시설 등의 공(식)적 돌봄 환경'을 구분해야 하지만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과 시설을 통해 자녀를 돌보는 가구를 합하였다.

〈표 5〉 출산계획모형의 변인의 빈도 분석

구 분		서 울		전 국	
		빈도(개)	백분율(%)	빈도(개)	백분율(%)
둘째아이 계획	있음	4,156	39.36	20,343	41.84
	없음	6,404	60.64	28,279	58.16
보육환경	제공되지 않음	364	3.45	1,423	2.93
	제공	10,196	96.55	47,199	97.07
여성경제활동	활동하지 않음	6,619	62.68	32,481	66.8
	활동함	3,941	37.32	16,140	33.2
남성경제활동	활동하지 않음	673	6.37	2,918	6
	활동함	9,887	93.63	45,704	94
여성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3,948	37.39	22,595	46.47
	대학이상	6,612	62.61	26,027	53.53
남성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3,109	29.44	18,967	39.01
	대학이상	7,451	70.56	29,655	60.99
기혼여성나이	20~29세	2,186	23.13	13,242	30.47
	30~39세	7,265	76.87	30,221	69.53
공동주택공시가격	평균값(53,020천원) 이하	3,769	35.69		
	평균값(53,020천원) 이상	6,791	64.31		

자료: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한국감정평가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

높은 반면, 기혼남성의 경제활동 변인을 살펴보면, 전국이 94%로 서울보다 약 0.4%정도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과 남성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비율을 서울과 전국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서울에 사는 기혼 여성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는 62.61%로 전국인 53.5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남성의 경우도 서울은 70.56%로 전국인 60.99%보다 높았다. 전국과 서울시 모두 기혼남성의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기혼 여성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명의 자녀 출산을 완료한 가구 중 기혼여성의 나이가 20대인 비율은 서울시 경우 23.13%이며, 30대인 경우는 76.87%이다. 이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기혼여성의 나이가 20대인 가구는 30.47%로 서울시보다 높은 편이나, 30대인 가구의 비율은 69.53%로 서

울시보다 작다. 이는 서울시에 사는 한 자녀 출산을 완료한 가구 중 기혼여성의 나이가 20대인 여성의 비율이 전국보다 낮게 나타나 첫 자녀 출산 연령이 전국에 비해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정평가원에서 제공되는 서울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평균 수치인 53,020천원을 기준으로, 53,020천원 이상인 지역에 사는 가구는 약 64%로 평균 가격보다 높은 지역에 사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사용되는 변인을 서울시와 전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시보다 전국에서 한 명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계획을 갖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제활동 변인 및 20대 기혼여성의 빈도가 전국 수준이 서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에 사는 기혼여성과 남성

〈표 6〉 추가출산계획모형의 분석결과

변 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 수 항	0.081	0.161
여성나이	- 1.007	0.051
보 육	- 0.182***	0.120
여성경제활동	- 0.137***	0.045
남성경제활동	0.355***	0.093
여성교육수준	0.167***	0.056
남성교육수준	0.220***	0.060
가계경제	0.072	0.045
총 자료 수	9451	
-2LogL	12452.433	

주: ***는 1% 수준에서,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의 경우 대학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가구와 여성의 경제활동, 좋지 않는 보육환경 등이 전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2. 분석결과

서울시의 한 자녀 출산을 완료한 가구 중 추가적으로 1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계획을 하는 가구의 분석 결과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인 기혼여성의 나이를 살펴보면, 한 자녀 출산을 한 30대 여성이 20대 여성보다 1명 이상의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가족이나 친인척,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추가자녀를 계획하는 것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또한 추가자녀의 계획 확률이 낮으나 기혼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를 그렇지 못한

가구와 비교했을 때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이 높았다.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가구에 비해 고등학교 이하인 가구가 추가자녀를 계획하는데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가계경제의 대리변수로 삼았는데 공동주택의 가격이 높은 지역에 사는 가구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가구보다 추가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에서 보육과 가계경제를 나타내는 변인은 다른 변수에 비해 다소 설명력이 떨어지지만 p-값이 유의수준 15%내로 나타나 포함시켰다.⁸⁾

또한, 이항로짓모형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를 지수화하여 오즈비율(Odds Ratio)을 구함으로써 참조집단 대비 비참조집단이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⁹⁾ 〈표 7〉은 각 변인별 오즈비율과 출산계획 확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오즈비율은 참조집단과 비참조집단간의 오즈의 비율로써, 다른 변수가 통제된

7)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VIF수치 2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8) 보육 변인의 경우 p-값이 12.92%이며, 가계경제는 10.8%로 나타났다.

9) 오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비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비율을 표현한다. 오즈비율은 두 오즈간의 비율이다.

상황에서 특정 변수가 변화를 할 때의 한계효과가 된다. 출산계획 확률의 차이는 다른 설명변수가 동일한 조건일 때 한 변인에 해당하는 참조집단과 비참조집단의 출산계획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예측한 차이를 말한다.¹⁰⁾ 변인별로 오즈비율과 출산계획에 대한 확률예측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나이의 오즈비율의 경우 여성의 나이가 20대인 가구의 추가출산계획 오즈에 비해 여성의 연령이 30대인 가구의 추가 출산계획 오즈가 36.5%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오즈비율처럼 오즈의 비율이 아닌 여성나이별 추가출산계획에 대한 확률을 예측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설명변수의 조건이 동일할 때 여성의 나이가 20대인 가구가 추가출산을 계획할 확률과 여성의 나이가 30대인 가구가 추가출산을 계획할 확률의 차이는 25%p로 비참조집단(여성의 연령이 20대인 집단)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 변인별 한계효과 및 출산계획 확률의 차이

변 수	오즈비율	출산계획 확률의 차이
여성나이	0.365	- 25%p
보육	0.834	- 4%p
여성경제활동	0.872	- 3%p
남성경제활동	1.425	8%p
여성교육수준	1.182	4%p
남성교육수준	1.246	5%p
가계경제	1.075	2%p

모형에서 설명력이 다소 떨어지는 변인인 보육 환경 변인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보육환경을 갖춘 가구의 출산계획 오즈가 보육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구의 출산계획 오즈에 비해 83.4%로 나타났다. 또한, 참조 및 비참조 집단 간

출산계획 확률의 예측 차이를 보면 4%p로 나타났다.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가구가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소자녀 가구로 그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더욱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Galor and Weil, 1996; 이시원 외, 2004; 공선영, 2006). 또한, 현대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물질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족들이 자녀를 돌봐주는데 치르는 희생을 과거보다 더 큰 부담감으로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보육에 대한 인프라가 과거에 비해 잘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아이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현재는 치열해지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부부가 자녀 양육하는데 드는 물질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여부에 관한 변인을 보면,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의 추가자녀 출산계획의 오즈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의 출산계획 오즈의 87.2%이다.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추가출산에 대한 확률의 예측 차이는 3%p로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기혼남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의 추가출산계획의 오즈가 기혼남성비경제활동 가구의 추가출산계획의 오즈에 비해 143%로 나타났다. 집단별 출산계획의 확률예측의 차이는 여성경제활동보다 큰 8%p로 나타났다. 가계경제가 여성의 경제활동보다는 남성의 경제활동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가계소득

10) 출산계획 확률의 차이 = 참조집단이 추가자녀의 출산을 계획 할 확률 - 비참조집단이 추가자녀의 출산을 계획 할 확률

증가보다 아이를 보육하는데 치르는 기회비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자의 경제활동 변인을 살펴보았을 때,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한 자녀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비경제활동이 가계 경제의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비율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간주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간의 역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한유미·곽혜경, 2004). 또한 자녀양육의 경험이 없이 자녀를 계획할 때보다 자녀양육을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자녀를 계획할 때 기혼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의 차이가 자녀를 계획하는데 더욱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서 성 역할의 차이가 첫째 자녀를 계획할 때보다 추가자녀를 계획하는데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혼남성의 교육수준과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가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보다 각각 142.5% 및 118.2%의 추가출산계획 오즈로 나타났다. 추가출산을 계획하는 확률예측의 차이는 각각 4%p와 5%p로 경제활동 변인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교육수준 변인으로 인한 추가출산 확률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경제 대리 변수를 살펴보면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공시가격보다 낮은 지역에 사는 가구가 높은 지역에 사는 가구의 추가출산계획 오즈의 107.5%이다. 지역별 가구의 추가출산계획의 확률을 예측한 차이는 2%로 평균 공동주택공시가격보다 높은 지역에 사는 가구가 추가출산을 계획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즈비율이나 추가출산확률의 예측의

차이를 살펴보면 각 변인 중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성의 나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성의 경제활동상태이다. 여성의 나이와 남성의 경제활동상태 변인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출산연령을 앞당기는 것은 초혼연령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초혼연령의 상승이나 자녀출산의 지연은 청년들이 비싼 주택가격,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요건 충족 등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전광희, 2002; Kohler et al., 2002; Kohler et al., 2006). 이를 위해 미래의 소득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를 보장하는 정책이 고안된다면 초혼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경제활동비율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가족 양립(work-family balance)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녀양육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고안된다면 추가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가구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 명의 자녀 출산을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 이상의 추가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5% 표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모형으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사회·경

제학적 요인별 확률 예측을 도출하기 위해 이항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높은 연령, 자녀의 기회비용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은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기혼여성 및 남성의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가계의 높은 경제수준 등은 추가자녀들을 계획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여러 변인 중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성의 연령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환경이 갖추어진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의 가구들이 많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자녀를 적게 낳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물질적인 비용과 가족이나 친척들의 회생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낮은 성형평성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책임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서울시의 경우도 각 구청을 중심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조현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아직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자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볼

때 초혼 연령을 낮추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초혼 연령 상승은 취업시장의 불안정, 부동산가격의 상승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여러 출산장려정책 중 미래의 가계소득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조세정책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혜택 그리고 안정된 직장 제공 등으로 초혼 연령 및 출산연령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현재 기혼부부 중심의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비 상승 등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기회비용이 가계경제를 위축시키므로 자녀교육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 정비 및 교육비 절감 등을 통해 추가자녀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및 현물보조는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 (Gauthier and Hatzius, 1997). 그러나 우리나라나 세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현상에 맞 대응하는 이른바 일가족 양립(work-family balance)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 및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형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도 여성과 동등한 육아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욱 연장시키는 등 여성의 육아에 대한 책임감을 완화시켜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¹¹⁾ 추가출산의 경우 이미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가구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계획을 하는 것으로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및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회

11) 중앙정부가 일·가정 양립지원의 일환으로 산전후휴가를 제공하는데 여성의 경우는 90일간 제공되지만 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 시 3일 동안 제공한다.

비용을 낮추고자하는 노력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5년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존문헌에서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구축 시 포함된다면, 정책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러한 한계가 극복된다면 고용모형, 지역경제모형 등과의 결합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시적 자료와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각 변인이 추가자녀의 출산을 계획하는 확률에 미치는 영향정도와, 집단 간 출산계획의 확률 예측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한국보건사회학회』, 19: 119~149.
- 김승권, 2005, “한국사회의 출산을 추락과 향후과제”,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1~17.
- 김홍배·최준석·오동훈, 2008, “여성의 출산을 결정요인과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지역연구』, 24(1): 23~37.
- 곽소희·김호범, 2007, “노동력 공급 감소와 질적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산업경제연구』, 20(1): 73~95.
- 류덕현, 2006,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현안분석』, 2: 26~45.
- 박상미, 2007, “사회환경과 출산의향: 대도시 기혼부인의 추가 자녀 출산 선호”, 서울대학교 보건학박사학위논문.
- 박추환·한진미, 2008, “출산, 고용, 성장간 상호연관성 연

- 구: 구조적 VAR모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8(1): 1~26.
- 이번송·김상신, 2008, “한국여성의 저출산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4.
-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 이시원·김영기·이성진·하상근, 2004, “출산감소의 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8(4): 207~231.
- 윤소영, 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59~166.
- 전광희, 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305~324.
- 천혜정, 2005, “둘째 자녀출산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 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4.
- 한유미·곽혜경, 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을 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29~40.
- 한은주·박정윤, 2006,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2.
- Galor, Oded and David N. Weil, 1996, “The Gender Gap, Fertility,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6(3): 374~387.
- Gauthier, Anne Hélène and Jan Hatzius,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 295~306.
- Hank, Karsten, 2002, “Regional Social Contexts and Individual Fertility Decision: A Multilevel Analysis of First and Second Births in Wester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8: 281~299.
- Kohler, Hans-Peter, Francesco C. Billari and José Antonio Orteg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_____, 2006, “Low Fertility in Europe: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2006 Annual
Meeting*, 1~51.

원 고 접 수 일 : 2009년 2월 11일
1차심사완료일 : 2009년 3월 16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9년 5월 11일

